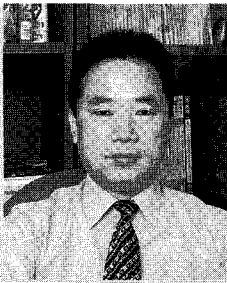


세계속의 전문 진공업체로 고성장

가정용 진공포장기상용화로 국내 주방문화 변혁 기대



이 겅 주
인트로팩 대표

지난 제38회 발명의 날 시상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이겅주 사장이 이끄는 인트로팩(대표 이겅주)은 중소기업으로서는 드물게 독자적인 발명품으로 외국 업체와 1천만원 이상의 계약을 이뤄낸 업체이다.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것에 대해 “지난 20여년 간의 어려움과 시행착오들을 깨끗이 보상받는 것 같았다”고 밝히는 인트로팩 이겅주 사장. 경기도 안산에서 진공포장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인트로팩을 찾아 그간의 발전사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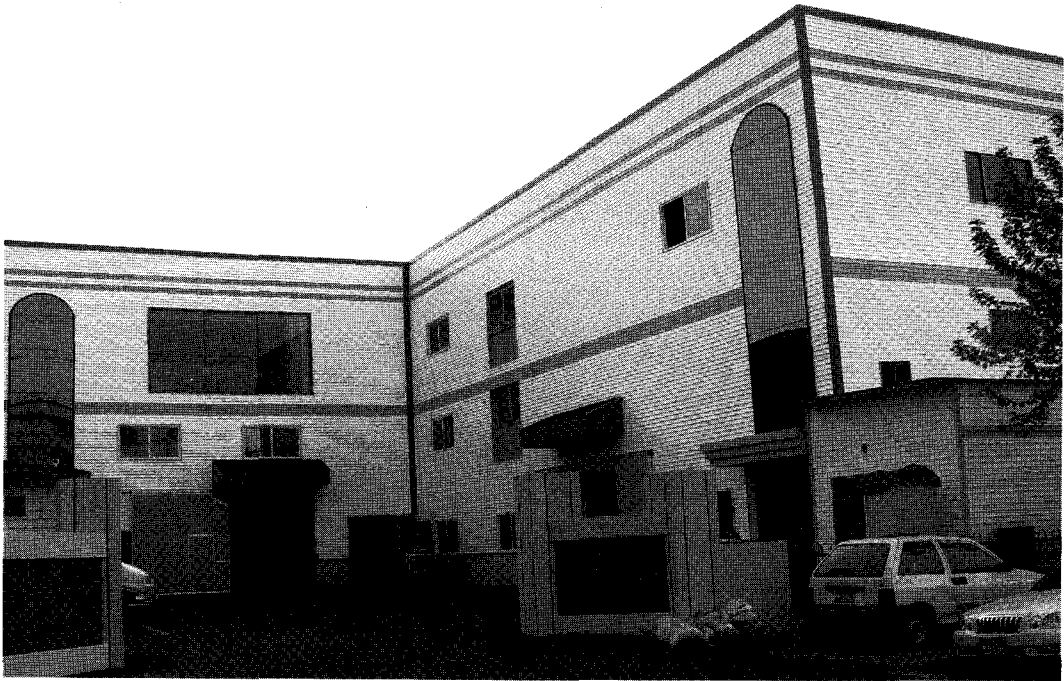
시화공단에 위치한 인트로팩은 이겅주 사장의 “재미있게 일하는 회사”라는 경영방침에 걸맞게 가족같은 분위기의 진공포장종합메이커이다.

1982년 2월 신광산업으로 설립된 인트로팩(대표 이겅주)은 1994년 지금의 안산시 시화공단에 공장을 준공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우연한 계기에 “포장”에 관심을 갖게 된 이겅주 사장은 26살의 젊은나이에 신광산업을 설립, 컵, 포장지 등의 단순 포장재 임가공을 시작, “어떤 위치에서든 최고가 되고 싶었다”고 밝힌다.

이후 그는 1996년 3월 성화기계를 설립했으며 1999년 SK(주) 생육 포장재용 고차단성 필름인 NOTRAN의 국내 총판을 획득하면서 농협중앙회, 축협 등 국내 유명 육가공업체에 NOTRAN을 납품하게 된다.

NOTRAN 제품은 우수한 산소차단성으로 육질 변색



▲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인트로팩 전경

을 방지하며 무연산 필름의 탁월한 진공성으로 육즙삼출량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환경을 고려해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다.

인트로팩은 2001년 진공포장종합메이커로 전환하면서 인트로팩으로 상호를 변경, 같은 해 4월 신개념 감각의 IP-2001 Portable 진공포장용 팩 및 진공기를 개발하고 시판하기에 이른다. 인트로팩은 IP-2001 Portable 진공포장용 팩 및 진공기를 제6회 국제포장공정박람회 출품, 호평을 받았으며 매일경제 벤처제

조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세계속의 전문 진공업체로 거듭나기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술개발에 전념해왔다”는 이걸주 사장과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인트로팩은 지난 2001년, 진공포장용 비닐팩 특허 및 신용신안을 출원했으며 진공포장지용 필름의 제조방법 및 진공포장기 특허를 출원했다.

뿐만 아니라 진공포장기 헤드 의장 심사등록 출원, 포터블 진공포장기 실용신안등록 출원, PCT 특허 출원, 진공포

장용 비닐팩 실용신안 등록증과 취득 등 인트로팩의 진공기술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에 이른다.

이걸주 사장은 “식품 포장을 하는데 있어 신선함을 유지하는데는 진공포장만큼의 대안이 없다”고 판단, 진공포장재를 생산하면서 세계속의 전문 진공업체로 도약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힌다.

지난 1995년부터 주문자상표생산(OEM) 방식으로 미국에 가정용진공포장기를 납품한 인트로팩 이 사장은 2000년 “나의 브랜드에 진공기와

IntroPack

bag, 악세사리를 독자개발하고 싶어 미국사와 결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 당시 외국 기업들의 경우, 가정용 진공 포장기가 활발히 보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국내 진공포장기 시장의 형성을 짐작, 2000년도부터 개발에 착수하게 된 인트로팩. 그러나 이 사장은 진공포장기가 개발되기까지의 많은 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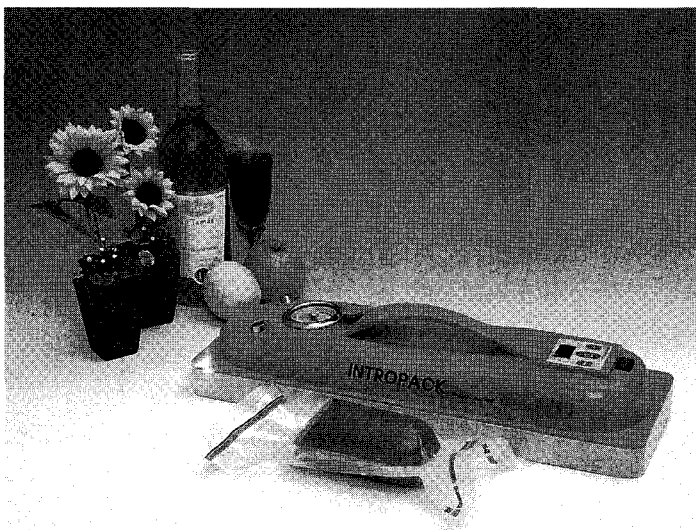
움이 있었다고 토로한다.

"술한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의 진공포장기를 세계속에 알리겠다는 의지때문이었다"고 밝히는 이결주 사장은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정용 진공포장기 FOOD GUARD를 개발, 30여개국에 상표를 출원하고 10여개의 국제 특허를 얻는데 성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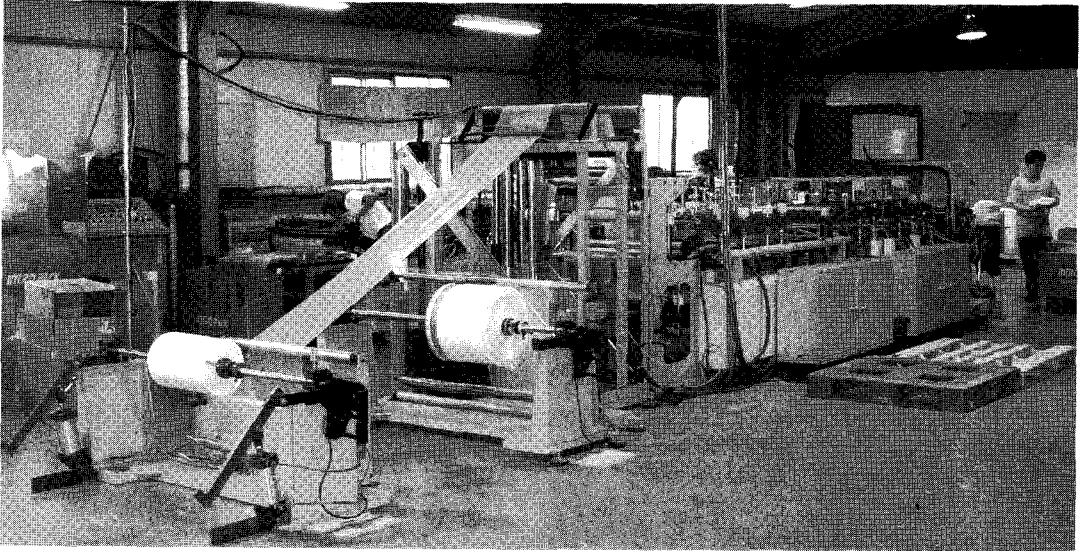
지난 2002년 말 인트로팩은 FOOD GUARD와 포장재를 미국 진공포장기 업체인 킬리아에 120억원의 로열티를 받고 기술을 수출했으며 7년 동안 최소 1,400억원의 제품을 주문자상표생산(OEM) 방식으로 이 회사에 공급키로 계약을 맺었다.

이로 인해 지난 2002년 한국 무역 투자 진흥 공사(KOTRA)로부터 단일품목으로는 지난 40년간 최대실적을 올렸다는 호평으로 KOTRA 사장상을 수상 했다.

인트로팩의 FOOD GUARD는 가정용, 상업용 진공포장기 전용포장필름으로 1년 이상의 연구개발성공과로 독특한 Airchannel 방식을 채택, 타제품에 비교했을 때 빠른 진공작업 속도를 자랑하며 우수한 진공성을 유지할 뿐 아니라 생산원가가 외국제품보다 25% 정도 싸 품질은 물론



▲ 인트로팩의 IP2001 포터블 진공포장기



▲ 인트로팩의 공장설비

가격경쟁력도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통 가정용 진공전용 필름의 경우 Airchannel부의 결합으로 쉽게 진공이 풀리는 결합이 있는 점을 인트로팩은 보완해 FOOD GUARD에 독특한 제조공법을 이용해 타사제품에서 볼 수 없는 완벽한 진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물을 진공상태에서 포장하면 미생물이 생기지 않아 썩지 않은 채로 장기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이걸주 사장은 "인트로팩의 Airchannel 진공포장필름 방

식은 진공포장 백 내부 공기가 에어채널을 따라 원활히 빠지도록 하는 핵심기술이라면서 미국, 이탈리아 다음으로 세계 3번째로 개발했다는데 큰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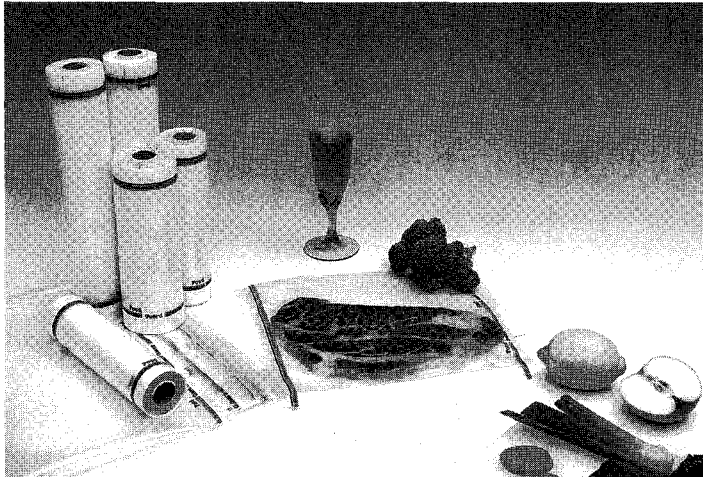
이 외에도 FOOD GUARD는 탁월한 산소차단성과 진공유지로 음식물 등의 장기 신선보존 기간을 배가 시켰으며 무연산 필름의 탁월한 진공성으로 육즙 삼출량 최소화시켰다.

인트로팩은 지난 200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전시회에 FOOD GUARD를 전시, 미국의 해밀턴비치, 블랙 앤

데커, 독일의 크롭스, 일본 산요 등세계 우수 회사들로부터 공급제의를 받는 등 세계적으로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IP 2001 포터블진공포장기는 각종 곡식류, 금속제품 또는 책(종이 보존), 그림 등 기타 고진공을 요하는 모든 제품에 사용 가능하며 기존의 상업, 챔버식의 진공포장기보다 진공시간을 1/3 이상 단축했음을 자랑한다.

이 진공포장기는 테이블과 같은 평평한 장소만 있으면 어떤곳이든 진공작업이 가능한



▲ 인트로팩 진공포장필름 FOOD GUARD

것에서 알 수 있듯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공간적 제한이 없다. 특히 세련된 디자인과 색상으로 대형 슈퍼마켓 등의 식품, 생선, 정육 코너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됐으며 공장에서도 자동화 라인 구성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인트로팩은 최초로 자동 펀칭기를 개발, 컵라면의 자동화에 일조했다.

롤 자동 펀칭기는 기존 일자형 인쇄제품이 펀칭방식과 틀린 교차인쇄방식으로 Sheet Cutting 없이 바로 롤 상태로 펀칭작업이 가능해 하나의 장비로 파지의 loss 부분을 16% 이상 절감시켰으며 펀칭 후 완

성제품의 자동 매수 출력으로 인해 작업인력 또한 현격히 줄어 탁월한 원가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롤상태에서 작업이 시작돼 완성품의 자동매수 출력을 통해 일정량의 제품을 자동으로 처리하며 파지의 자동수거 작업이 가능해 펀칭에 관련된 모든 작업이 일괄처리된다.

즉, 작업공정이 단순 및 편리해지므로 작업속도의 효율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현재 인트로팩은 연포장사업부와 기계사업부로 구성, 연포장사업부에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FOOD GUARD와 진공전용 포장지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기계사업부에서는 국내에 처음 선을 보인 자동 Roll Punching Machine 등을 생산,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외국 마켓(market)에 진열되어 있는 인트로팩의 제품들을 볼때 가장 뿌듯함을 느낀다고 표현하는 이걸주 사장. 그는 40여명의 인트로팩 직원들을 이끌면서 평생직장으로 믿을 수 있고, 일할 맛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걸주 사장은 FOOD GUARD를 국내 1가정 1대씩 FOODGUARD를 공급할 계획으로 다음달부터 TV광고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내 주방문화를 바꿔놓을 포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인트로팩이 좀더 안정을 찾은 이후 국내 포장산업의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일조하고 싶다는 이걸주 사장은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시장 선두를 목표로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고품질로 진공포장의 세례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초혜 기자